

“사회가 원하는 일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 하라”

전남대, 선대인 작가 초청 ‘한 책’ 특 콘서트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한 책 선정 4차 지식정보화 시대 자신만의 콘텐츠 갖춰야

“사회가 원하는 일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 또한 진정한 창의력은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능력이다.”

전남대가 진행하는 ‘광주전남이 읽고 토크하다’ 작가 초청 ‘한 책’ 특 콘서트가 지난 11일 오후 3시 용지관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작가와 학생, 시민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작가는 ‘기술 빅뱅의 시대, 일의 미래와 준비법’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2018 한 책’은 지난 3월 교수, 언론인, 사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후보 도서 5권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지역민의 투표를 통해 선대인 작가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엔 선정된 한 책은 전남대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광주전남이 읽고 토크하다’에서 최초로 비문학 도서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그만큼 변화된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 작가는 “미래 일자리 변화는 한국 경제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표다.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은데 이에 대한 방향과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선 작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술 수명이 눈에 띄게 단축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기업 수명도 짧아져 예전에는 50년이 주기였다면 지금은 15~20년 안팎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여러 번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요. 일자리, 교육 부분에서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답 맞추기 방식의 입시 위주 교육 방식은 4차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선 작가는 향후 전개 중인 제2의 기계시대는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능력도 어느 정도 대체할 거라고 예상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는 협력도 하고 경쟁하는 단계로 나아갈 거라고 내다봤다.

“지금의 높은 실업률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상당부분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나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이라며 “한 예로 2만 명이 근무하던 중국의 어느 공장은 기계가 투입된 이후로 100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선 작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로봇밀도가 높은 국가”라며 “2025년이면 고급산업용 로봇의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률이 33%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일자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중급 수준의 기술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정형화된 일자리 사무, 행정, 제조, 생산 관련 직종이 대표적이



지난 11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작가 초청 ‘한 책 특 콘서트’에서 선대인 작가가 강연하고 있는 모습.

다. 특히 비정형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아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눈앞에 닥친 일자리 감소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사람들의 욕구가 세분화됩니다. 또한 스펙의 효율성, 라이센스의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지구요. 앞으로는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회적 가치와 자신의 소명의 교차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선 작가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절제와 같은 소프트 스킬(soft skill) 덕목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가 원하는 일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웬만한 일은 기계가 다 하게 돼

있어 무엇보다 창의적인 해결 능력,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같은 능력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 콘서트에 참석한 김선호 학생은 “일생 동안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는 말이 남다른게 다가왔다”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진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자녀의 직업에 관심이 많다는 시민 김성자 씨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획일화된 공부에 매달리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와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는 향후 독서후기 공모전, 한 책 문학기행, 한 책 토론회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530-11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표현하는 것”

희수 앞둔 수필가 이운수씨 ‘자연으로의 사유’ 펴내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자연, 제2부는 예술, 제3부는 바둑, 제4부는 기행, 제5부는 역사, 제6부는 사유

“글을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배 문인들의 말에 의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생각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마음을 표현하려면 자신의 삶과 생활에 근원해야만 한다. 물을 마실 때는 물의 근원을 생각해보라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이란 말과 같아...”

칠순이 넘은 문인이 자아실현을 위해 수필집을 펴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희수(77)를 앞둔 만학도 이운수 수필가. 이 씨는 최근 다섯 번째 수필집 ‘자연으로의 사유(교음사)’를 펴냈다.

광주중앙초등학교 교장 등 43년의 교직 경력을 지닌 이 수필가는 이번 작품집에서 수필과 예술, 수필과 바둑, 수필과 역사 등 수필을 매개로 한 자신의 관심 사항을 깊이 있는 사유와 정갈한 문체로

풀어냈다. 각각의 수필에는 노(老) 문인의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 있는 그대로의 ‘무위자연’의 면모가 묻어난다.

발문을 쓴 장정식 수필가는 “이운수 수필의 개괄적 인상은, 작품 창작의 바탕이 된 다양한 소재를 꼼꼼히 파고들며 열심히 공부한 열정에 대한 존엄함을 느끼게 한다”고 평한다.

한편 이 수필가는 목포사범과 전남대학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수필문학’에 수필이 천로대 문단에 나왔다. 서은문학, 광주문협에서 활동 중이며 경향신문 경향사도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방울국악진흥회 18일 나주서 국악 공연



‘남도민요’ 공연 모습.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한국전력공사 나주 혁신도시 분사 한빛홀에서 전통국악 공연 ‘우리국악의 희로애락’을 연다.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 5주년 기념공연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전 임직원과 가족, 지역민들을 초대해 전통국악을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올해 임방울국악제 퓨전판소리 최우수상팀 ‘전통국악양상 놀음판’이

문을 열고 13회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명창이 ‘춘향가’ 중 ‘동헌경사’를, 이정아 명창이 가야금병창 ‘호남가’를 무대에 올린다. 올해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상희 명창은 ‘홍보가’ 중 ‘홍보 박타는 대목’을 부르며 분위기를 돋운다.

‘신고산타령’, ‘한많은 대동강’, ‘목포의 눈물’ 등을 이승연(서울한림예고 2년) 양의 아코디언 연주로 듣고 부채춤, 풍물판굿, 소고춤 등이 이어진다. 문의 062-521-073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강, 예스24 독자 선정 ‘2018 노벨문학상 작가’에

소설가 한강이 예스24 독자가 선정하는 ‘2018 노벨문학상 작가’로 뽑혔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올해 노벨문학상 선정이 미투 파문으로 연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독자들을 대상으로 ‘2018 노벨문학상 작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자체 진행했다. 투표 결과 독자 총 16만 17명이 투표

에 참여, 한강 작가가 20.3%(3만2528)로 독자가 선정하는 ‘2018 노벨문학상’ 작가에 선정됐다. 2위는 황석영 작가가 차지했으며 3위부터 5위는 각각 무라카미 하루키(10.2%), 밀란 쿤데라(9.7%), 코맥 매카시(5.4%)가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뮌헨·타이페이 등 ‘국제교류 참가자’ 모집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작가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지역 청년작가의 창작활동과 세계 미술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 및 국제교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작가 2명과 국제레지던시 교류기관 파견자 4명(작가3명, 연구자1명)이다.

해외 파견 기관은 독일 뮌헨시 문화부 국제레지던시 빌라 발드베르타, 대만 타이페이 아티스트빌리지, 타이안 샤오롱 아티스트빌리지에 작가 각 1명씩, 타이페이 국

립대학 관두미술관 연구자 1명이다. 각 파견기관에서 스튜디오와 거주공간을 제공받게 되며, 광주시립미술관은 국제항공료와 창작지원비를 제공한다.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의 입주작가에게는 오픈스튜디오, 각종 세미나, 간담회, 크리틱 및 문화예술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만 45세 이하 광주지역 출신작가로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 외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밖에 중국 북경창작센터 2019 입주 연구자도 함께 모집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월 8일까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7일(북경 창작센터는 11월 15일 예정)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 613-715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비발디 ‘글로리아’·슈베르트 ‘강물’ 선사

메조소프라노 문주리 독창회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메조소프라노 문주리(사진)가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갖는다.

문주리는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에서 공부하고 독일 테트펠트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귀국 후 지난 1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첫 전막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과 ‘서울오페라페스티벌 2018’ 등에 출연했다. 현재 전남과학대학에 출강하며 광주벨칸토성악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미사곡, 가곡, 오페라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다. 먼저 비발디의 ‘글



로리아’로 문을 열고 슈베르트의 가곡 ‘강물’과 ‘그리움’을 무대에 올린다. 포레가 만든 ‘어떤 날의 시’와 7곡의 모음곡으로 구성된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로 깊은 여운을 선사한다. 이어 글록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에우리디체 없이 어찌하리’를 부르고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삼손이 나를 찾아오리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4017-284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CHANNEL A 미니시리즈

연두밤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